

추석가정예배순서



기 독 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추석가정예배순서

인도자 : 가족 중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정한 후,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모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 기도자를 정합니다.

*각 가정은 예배문을 참조하여 가정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식 사 인 도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다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 용 한 기 도 인 도 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시편 30:11)

찬 송 5 2 4 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창 세 기 37:6-11 가족 중에서

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꿈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설 교 꿈 을 품 는 가 정 인 도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창조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명이나 비전, 꿈은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 품으신 꿈을 다시 기억하고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라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창37:19)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이 꾸은 꿈은 밭에서 형들의 곡식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7절)과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9절)을 꾸입니다. 이 꿈은 단순히 소년 요셉의 상상이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 개인만 잘 되는 꿈이 아니라, 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꿈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지혜롭게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은 사람은 꿈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꿈을 품었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의미하는 바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은 꿈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고난을 양분으로 자랍니다. 요셉은 꿈을 말하자마자 꿈의 시련을 겪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 자란 요셉을 불편해했습니다. 형들도 문제지만 요셉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꿈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꿈은 삶을 힘들게 합니다.

꿈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다

꿈은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매일 꿈을 먹는 사람은 허무할 틈이 없습니다. 꿈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오랜 고난의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처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꿈을 통해 가족과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꿈을 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 송 …… 490장 (또는 가족이 좋아하는 찬양)…… 다 함 께
기 도 …………… 가족 중에서
주 기 도 문 …………… 다 함 께

성묘 가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조상)의 무덤 앞에 모여
잠시 동안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 : 453장(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

◦명절에 부모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기르실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
명절에도 시름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니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때때옷으로 차려입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못 다한 효도를
자식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형편에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희망의 터전을 일구다 가신 부모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 창세기 47 : 23 - 31

◦설교 : (생략할 수 있다.)

◦찬송 : 428장

◦주기도문